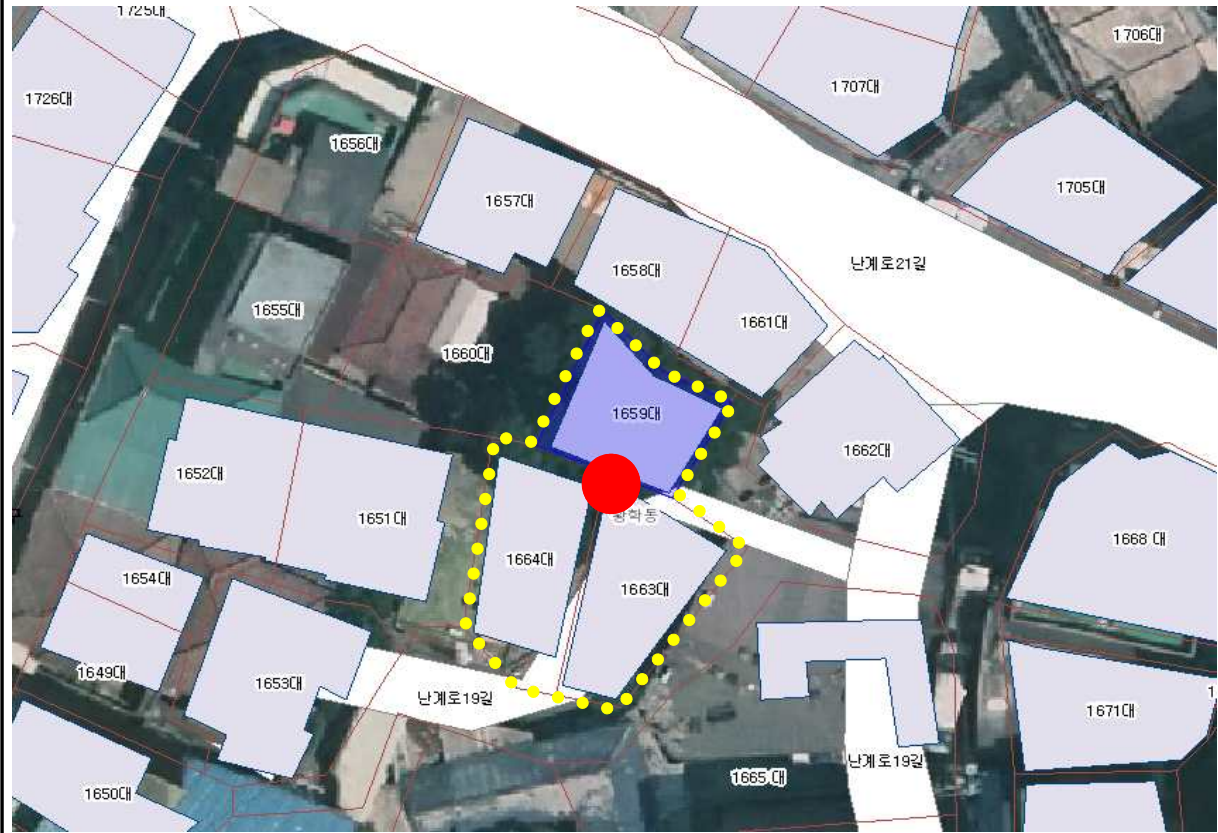


보호수 지정 요청

수종명		회화나무		주수	1주	
소재지		황학동 1659일대		지목	대지	
수령		200년(추정)	수고	20m	흉고직경 (흉고둘레)	1.5m (4.7m)
소유자	주소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3길 16, 에이203호(구의동, 파르네빌아파트)		성명	남마리 (황학동 1659)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196-6			남천일 (황학동 1664)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혈티로 226			김기영 (황학동 1663)	
지정사유		<p>황학동 1659번지 내 수령이 아름다워 보존가치가 있는 회화나무에 대한 보호수 지정요청이 있으며, 현재 회화나무는 생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그 생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보호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회화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주변토지의 매입을 통한 생육조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생태 보호, 역사·문화의 장,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p> <p>황학동 일대는 도시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녹지공간, 역사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p>				
나무의 특징		<p>회화나무는 콩과의 낙엽교목으로서 원산지는 중국이다. 나무가 거목으로 자라며 좋은 녹음을 제공하므로 정자목으로 많이 심어졌고 가로수나 정원수로 많이 심어졌다. 공원에도 많이 심어져 7~8월의 꽃이 귀할 때, 흰꽃이 만발하게 되면 운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꿀벌들의 밀원으로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나무이다. 대기오염에도 강하고 병해충도 적은 나무이다. 행복을 가져오는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에서는 출세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여 중정(中庭)에 심는다.</p>				
생육환경 및 주변여건		<p>규격은 높이 20m, 근원직경 1.2m이며, 흉고둘레가 약 4.7m에 달하며, 수령이 약 200여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사유지 3곳 건물에 둘러 쌓여 있으며 불투수성 포장으로 수목생육이 불량한 여건에 있고, 지면으로부터 약 70도 정도 남쪽으로 기울어져 건물에 기대어 있는 상태이다.</p>				
전설 및 고사		<p>황학동 1163번지에는 보호수인 200년 된 회화나무가 마을을 수호하고 있으며, 황학동 보호수로부터 북쪽으로 200m 이내에 주거지에 둘러 쌓인 1659번지 내 수령이 오래되고 보존가치가 있는 회화나무도 비슷한 시기에 식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부터 매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주민과 상인이 서로 화합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황학회화나무제를 거행하고 있다.</p>				

위 치 도



현 황 사진



보호수 지정 요청

수종명	무궁화		주수	1주	
소재지	서대문구 독립문로35		지목	종교용지	
수령	80~90년	수고	4m	흉고직경 (흉고둘레)	18cm (55cm)
소유자	주소	서대문구 독립문로35	관리자	주소	서대문구 독립문로35
	성명	황광민 (☎ 02-363-5260)		성명	황광민 (☎ 02-363-5260)
지정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령 80년~90년(추정)의 고목 ※ 무궁화의 보통 수명이 40~50년 정도 2. 정부에서 보급 권장하는 순수재래종(청단심계) 3. 서울미래유산 2013-154(석교감리교회)을 찾는 방문객에 대한 나라꽃의 이해도 향상 				
나무의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꽃의 크기 - 지름 5~6cm 정도 중간크기 2. 개화기간 - 7월초~10월초 				
생육환경 및 주변여건 (소유자 동의 여부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육환경 및 주변여건 - 주차시설 및 가로등이 인접한 화단에 위치 2. 소유자 동의 여부 - 소유자 동의(황광민, 02-363-5260) 				
전설 및 고사	<p>한서 남궁억 선생은 무궁화를 사랑한 대한제국 말기의 독립운동가이다. 남궁억 선생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의 한서감리교회를 설립하고 후학들에게 무궁화 보급에 대한 의지와 사랑을 전하였다. 이런 정신을 계승 받으신 한서 감리교회목사님은 “이 무궁화가 남궁억 선생이 보급하려 노력하였던 무궁화 원종과 가장 흡사하다.” 고 말한바 있다.</p>				

위 치 도



현 황 사진

